

코로나 직격탄 스포츠계 연봉 삭감·감독 해고



호날두

유벤투스 선수단 연봉 1209억 삭감
EPL 선수도 1500억원 삭감 직면
우루과이 축구대표 감독 일시 해고
재정 위기 미국 종목단체 직원 감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스포츠계에 불황이 튀고 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의 스타 선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구단의 재정 부담을 나누기 위해 1000억원 대의 연봉 삭감을 감내하기로 했다. 유벤투스는 1군 선수단이 총 9000만 유로(약 1209억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29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구단에 따르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애런 램지 등 1군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물론이고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 등 코치진도 구단의 연봉 삭감 요청에 동

의했다.이에 따라 이들에게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가 삭감된다. 세리에A 최고 연봉을 받는 호날두는 총 400억원의 연봉 중 약 51억원을 못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벤투스와 선수단은 차후 리그가 재개되면 삭감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루과이 축구대표팀을 지휘하는 명장 오스카르 타바레스(73) 감독도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됐다. AFP통신은 28일(한국시간) 우루과이축구협회(AUF)가 타바레스 감독을 포함한 대부분의 협회 직원에게 일시해고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1988~1990년에 이어 2006년부터 우루과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있는 타바레스 감독도 찬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수' 또는 '마에스트로'로 불리는 타바레스 감독은 우루과이를 이끌고 네 차레나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우루과이 축구의 명지도자다. 잉글랜드 축구계 '올스톱'된 상황에서 프리미어

리그(EPL)·잉글랜드풋볼리그(EFL)·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가 생존전략 찾기에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EPL, EFL, PFA는 27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펼친 뒤 성명을 통해 "3개 단체는 잉글랜드 프로축구가 코로나19로 멈춘 상태에서 재정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4월 30일에 리그가 재개될 것이지만 안전 확보가 우선 요건이다. 다음 주에도 회의를 계속해 공동 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단체 화상회의에서 나온 '힘든 결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영국 언론의 반응도 뜨겁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프리미어리그 스타 선수들이 하위리그 클럽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총 1억 파운드(약 1500억원)의 임금 삭감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하위리그 구단들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상위리그 구단들 역시 전면적인 감비가 불가피해졌다"라며 "앞으로 3개월 동안 모든 선수의 연봉

이 20%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20억 파운드(약 2조9950억원)에 이른다. 연봉 삭감으로 약 1억5000만 파운드(약 1572억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첼피언십(2부리그) 구단들이 선수들의 주급을 6000파운드(약 880만원)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포츠 강국 미국의 올림픽 종목 단체들도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28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 산하 종목 단체(NGB) 중 최소 1개 이상이 직원 감원에 들어갔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8000개 이상의 각종 대회가 취소돼 대회 개최 수입이 급격히 줄었다. NGB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43개 종목 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월부터 6월 사이 모두 1억2100만달러(약 1500억원)의 수입 손실을 예상했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내년 7월 23일 개막 유력”

일본·미국 언론 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개최식이 내년 7월 23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과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2021년 7월 개막 안(案)을 마련했다며 일본 정부, 도쿄도(東京都)와 협의 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안할 것이라고 복수의 대회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전했다. 요미우리는 “최근 대회는 금요일에 개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 7월 24일(금요일) 개막이라는 당초 계획에 가까운 금요일인 내년 7월 23일 개최식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대회 관계자를 인용,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개막을 축으로 조율되고 있다면서 조직위 등이 IOC와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도 개막일은 금요일인 내년 7월 23일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내년 7월 23일 개막해 8월 8일 폐막하는 일정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혹서기를 피해 내년 봄(5-6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종식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여름(7-8월) 개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 23일 개막하면 당초 대회 계획과 유사해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도 되고, 여름 방학 기간이어서 8만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조직위 회장은 전날 일본 민영방송인 닛테레에 출연해 “가능하면 준비 기간을 길게 두는 것이 좋다. (개최 시기는) 6-9월 사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겠느냐”면서 “다음 주 중에 어떤 결론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NYT 역시 이명연의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 7월 23일에 도쿄올림픽이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YT는 “올림픽 중계권료로 10억달러(약 1조



지난해 12월 15일 준공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메인스타디움.

/연합뉴스

2000억원) 이상을 지불하는 미국 내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유니버설에도 이는 최악의 시기”라

며 다만 이 경우 무더위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기원 이사장에

전갑길 전 국회의원

세계태권도본부국기원의이 사장에 전갑길(63·사진)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국기원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2020년도 제 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전갑길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뽑았다.



이사장은 국기원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 수장이다. 재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국기원은 지난해 7월 홍성천 전임 이사장의 임기 만료 후 8개월째 이어진 이사장 공백 사태를 끝낼 수 있게 됐다. 전갑길 이사장은 조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광주시의원, 제16대 국회의원, 광주시 광산구청장 등을 지냈다. 전 이사장은 “늘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이사장으로 선임된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올림픽 1년 연기되면 어때! ... 38살과 39살은 차이 없잖아~”

육상 100m 우승 노리는 개틀린
 “내 신체 능력은 처지지 않을 것”

불꽃이 눈앞이지만, 저스틴 개틀린(38·미국)은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그의 목표는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100m 우승이다. 1982년생 스프린터에게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는 엄청난 악재일 수 있다. 그러나 개틀린은 27일(한국시간) 미국 TMZ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시간은 개틀린

의 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38살과 39살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나는 도쿄올림픽(남자 100m)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20년에는 여건상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는다. 그 시간에는 ‘2021년 올림픽’에 맞춰 훈련하면 충분히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거리 선수 대부분이 20대 후반부터 급격한 기록 하락에 시달린다. 하지만 개틀린은 30대 후반에도 세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2019년 개틀린은 100m 개인 최고 9초87로 세계 랭킹 4위에 올랐다.

1996년생 크리스천 콜먼(미국)이 9초76으로 2019시즌 1위였고, 노아 라일스(23·미국)와 디바인 오두두루(24·나이지리아)가 9초86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개틀린은 14~15살 어린 후배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메이저대회에서도 개틀린은 메달을 놓치지 않았다. ‘황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였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볼트에 이어 2위에 올랐고, 볼트가 마지막 레이스를 펼친 2017년 런던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볼트와 콜먼을 제치고 우승했다.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콜먼에 이

어 2위를 차지했다. 개틀린은 “내 신체 능력은 2020년에도 2017년보다 처지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개틀린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100m에서 9초8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대 초반이었던 16년 전의 일이다.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두 차례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팬과 동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개틀린은 30대 후반에도 20대 초반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개틀린이 2021년 도쿄올림픽 남자 100m에서 우승하면 이 종목 최고령 우승자 기록이 바뀐다. 올림픽 남자 100m 최고령 우승 기록은 린퍼드 크리스티(영국)가 보유하고 있다. 크리스티는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만 32세에 우승했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19종목 31개 팀에 사업비 배정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체육회는 29일 “올해 대한체육회로부터

지방체육진흥사업비 7억6396여만원을 지원받아 전남도를 비롯한 17개 지자체의 19종목 31개팀에게 사업비를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체육진흥사업은 지방 실업팀 및 선수 육성, 종목지변 확대, 지역 및 국제교류 사업 등의 사업 지

원으로 지방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도체육회는 지방체육진흥사업비를 균등지원(35%), 실업팀 인원수(40%), 지난해 전국체전 성취율이 기준이 되는 경기력향상(20%), 예산집행률(5%) 별로 차등화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재난 상황속에서도 개인훈련을 하며 컨디

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낸다”며 “전남체육 진흥과 올해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선전을 위해 선수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에서는 17개 지자체에서 21종목 32개팀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장흥군 육상팀이 창단을 앞두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앙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주디
3관	월드 워 Z, 스타 이즈 본
4관	인버저블맨
5관	사랑하고 있습니까
9관	1917, 다크 워터스
7관 씨네커틀	1917, 인버저블맨 미드나잇 인 파리
8관 씨네커틀	정직한 후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